

신재 최산두 한시를 통한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구축 방안*

백 속 아**

차 례

1. 시작하며
2. 최산두의 삶과 문학
3. 최산두 관련 유물·유적과 문화콘텐츠
4. 마치며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신재 최산두 한시 작품을 통하여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구축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이다. 작품에 드러난 인간 삶의 가치 지향을 인문학적 문화콘텐츠와 연계하여 논의했다. 먼저 최산두가 살았던 시대상황과 정신적 지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新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를 통하여 22세 때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부터 31세 별시문과 급제 때까지의 행적을 살펴보았다. 최산두의 나이 21세 때인 1504년(연산군 10년)에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스승인 김굉필이 순천에서 극형을 당한다. 김굉필의 제자인 최산두에게 화가 미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의 한시 <天子菴霖雨吟>을 통하여 잃어버린 아홉 해를 승주군 이읍면에 있는 천자암에서 보냈다는 것을 가능해 볼 수 있었다.

최산두 한시의 자연애와 인간애의 의미를 탐색하고 인문학적 문화콘텐츠를 구축했다. 광양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 농업, 공업이 어우러진 복합도시이다. 지역민들의 사회적 계층 갈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킬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긍심 고취와 인문학적 문화 소통 이해도 증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민들의 심신 치유와 인문학적 지식 공유를 통한 농어촌과 도심의 문화공동체적 협력 체제 구축에 활로가 될 것이다.

핵심어 : 신재 최산두의 삶과 문학, 인문융합예술, 커뮤니케이션 구축 및 활성화, 문화공동체제 기반 확보, 교육자료, 문화관광 자원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임
(2021S1A5B5A17052113)

** 남도인문학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조선중기 ‘호남삼걸(湖南三傑)’로 일컬어졌던 신재 최산두 한시 작품에 드러난 자연애와 인간애의 정취를 탐색하고, 인간 삶의 가치 지향을 추구하는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구축 방안의 제시이다. 최산두 한시의 자연애와 인간애의 의미망을 탐색하고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구축 방안 모색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최산두의 삶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유적과 유물을 탐구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광양시는 농촌, 어촌, 공단이 어우러진 융합도시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민들과 농어촌 지역민들의 사회적 계층 갈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문화를 연구하고 선도하는 지식인으로서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문학적 소양을 섭렵하여 인간 삶의 가치 지향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활성화는 지역민의 문화공동체 체제 구축을 위하여 꼭 필요한 논의이다.

이 연구는 지역민의 문화적 소외감 극복으로 자긍심 고취와 인문학적 문화소통 이해도 증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무심코 지나쳤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인문학적 헤안이 열리길 바라는 측면에서이다. 또한 인문학적 지식 공유를 통하여 농어촌과 도심의 문화공동체적 협력 체제 구축에 통로가 될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 인물의 인문학적 우수성 홍보와 문화 소통 의미망 구축뿐만 아니라, 교육적 자료 확보와 각종 강의 자료를 (학생·시민) 연구 결과로 도출해 낼 것이다. 이번 결과물 도출은 신재 최산두 한시에 내재된 자연애와 인간애와 유물과 유적의 문화콘텐츠 구축에 있다. 이를 통하여 인간 삶의 올바른 가치 지향을 깨우치고 지역 인물의 우수성을 발굴, 보존, 홍보하기 위함이다.

2. 최산두의 삶과 문학

2.1. 시대 상황과 정신적 지향

2.1.1. 시대 상황

신재 최산두(崔山斗, 1483~1536)는 1482년(성종 14년) 4월 10일 전남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현재 광양군 봉강면 부저리 저곡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북두칠성의 광채가 백운산에 내렸다 하여 백운산의 ‘산(山)’과 북두칠성의 ‘두(斗)’를 합하여 ‘산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¹⁾ 최산두는 6세 때부터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여덟 살 때 시를 지었을 만큼 시문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다음 <영우두(永牛頭)>²⁾를 살펴보자.

| | |
|-------|--|
| 爾從麟借尾 | 소야 너는 기린에게 꼬리를 빌리고 |
| 炎帝與其頭 | 염제(炎帝) ³⁾ 가 그 머리를 주었구나 |
| 地關中寅子 | 땅은 인시(寅時) ⁴⁾ 와 자시(子時) ⁵⁾ 사이에 열리고 |
| 商正間夏周 | 상나라 정월은 하나라 주나라 사이였더라 |
| 夜奔燕將劫 | 밤에 적진(敵陣)으로 돌진하니 연나라 장수가 겁먹고 |
| 春喘漢相憂 | 봄날 숨 헐떡이니 한나라 재상이 걱정을 하는구나 |
| 未賴齊王易 | 제선왕(齊宣王)이 양으로 바꾸어 주지 않았다면 |
| 煙郊牧笛收 | 지금쯤 연교(煙郊)에는 목적(牧笛)이 사라졌으리라 |

여덟 살 어린 나이에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지은 작품이다. 제나라 장수 전단(田單)이 연나라와 전쟁 중에 소를 이용하여 연나라 군사를 물리친 이야기에 비유했다. 소에게 붉은 비단옷을 입혀서 불을 붙여 연나라 진영으로 내몰았다. 꼬리에 불이 붙은 소들이 미친 듯이 날뛰며 연나라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짓밟았던 고사(古事)이다. 그리고 제나라 선왕(宣王)이 혼중(鑿鐘)⁶⁾에 쓰일 소가 제

1) 초계최씨대동보편찬위원회, 『新齋集』, 남주인쇄소, 1989, 17쪽.

2) 『新齋集』, <영우두(詠牛頭)>

3) 염제(炎帝): 중국 신화에 전해져 오는 인물로 농사의 신으로 불린다.

4) 인시(寅時): 십이시(十二時)의 셋째 시로 오전 세 시부터 다섯 시까지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시간이다.

5) 자시(子時): 십이시(十二時)의 첫 번째 시이며, 오후 열한 시부터 오전 한 시까지이다.

물로 끌려가며 떠는 것을 보고 애처롭게 여겨 소를 놓아주게 하였다. 그리고 대신 양(羊)으로 바꾸어 제물로 쓰도록 했던 고사(故事)를 떠올려 시상을 일으킨 것이다.

15세 되던 해에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80권을 안고 석굴에 들어가 2년 동안 천 번을 통독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는 최산두의 학문적 기틀을 잡는 데 중요한 때이다. 순천 북문으로 유배 온 김굉필을 만나 수학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19세 때에 상경하여 조광조(趙光祖), 한충(韓忠), 김구(金絿), 김안국(金安國), 김정국(金正國) 등과 더불어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었다. 생면부지(生面不知)의 선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은 스승 김굉필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최산두의 생애를 살피다 보면, 22세 때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부터 31세 별시문과 급제 때까지의 행적이 묘연하다. 『新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최산두의 나이 21세 때인 1504년(연산군 10년)에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스승인 김굉필이 순천에서 극형을 당한다. 김굉필의 제자인 최산두에게 화가 미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최산두는 스스로 운둔할 곳을 찾아 나서야 했을 것이다. 다음 <天子菴霖雨吟>을 통하여 잃어버린 아홉 해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 | |
|---------|--|
| 雲窓愁道九年天 | 구름 낀 창가에서 도학 궁리 ⁸⁾ 한 지 아홉 해 |
| 積日瀑鈴漢浦連 | 연일 쏟아지는 빗방울 한포까지 이어졌네 |
| 可使江山爲水國 | 강과 산이 물에 잠겨 물나라가 된다면 |
| 蒼生渡口欲扶船 | 백성(蒼生)들은 포구에서 배를 붙들겠지 |

위의 시 첫 행에서 아홉 해라는 단어가 나온다. 구름 낀 창가에서 도학을 궁리한 지 아홉 해라고 읊고 있다. 최산두의 생애 중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지점

-
- 6) 혼중(混鐘): 종이 새로 만들어지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새 종의 갈라진 틈을 바르던 일종의 종교의식.
- 7) 『新齋集』, <天子菴霖雨吟>. 이 작품은 최산두의 나이 22세부터 31세까지의 흔적을 가늠케 해 준 작품이다. 천자암을 제목으로 창작된 시는 <更登天子菴>, <初秋會天子菴>, <更登天子菴> 등 총 네 작품이 문집에 실려 전해오고 있다.
- 8) 궁리(窮理): 일을 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과 시기가 맞아떨어진다.

최산두는 스승의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았다. 제자인 자신에게도 불행이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때문에 연산군의 폭정에서 벗어나 은둔할 곳을 찾아야 했다.⁹⁾ 결국 천자암으로 들어가 9년 동안 머물며 도학 공부에 힘썼던 것으로 파악된다.

31세(중종 8년) 때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 32세에 박사(博士)에 승직, 35세에 홍문관 수찬(弘文館 修撰)·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 경연검사관(經筵 檢査官), 36세 때 시평에 제수·홍문관 교리·사간원 헌납 등을 역임, 이때 중종이 ‘일인유경보명유신(一人有慶寶命維新)¹⁰⁾’이라고 새긴 옥홍(玉筍)을 하사, 37세 9월 사간부 장령(司憲府 掌令)에 승직·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에 올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15일 후구세력들에 의한 기묘사화가 일어나 화순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유배생활 14년을 마치고 2년여 지난 1436년 4월에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5세기는 유교적인 문물제도 정비와 부국강병 실현 등 건국에 따른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이다. 당시의 학자들은 주자학(朱子學)·육학(陸學)·여학(呂學) 등 다양하고 폭넓은 사상과 학문에 관심을 기울였다.¹¹⁾ 15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조선에 개혁의 바람이 불어 닥쳤다. 왕조정치의 구조적인 모순과 연산군의 폐악한 정치가 원인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혁파로 등장한 신진세력은 사장위주(詞章爲主)의 문학풍토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¹²⁾ 즉 두 세력의 문학풍토에 대한 갈등 요인이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이다.

최산두는 15세기 후반 훈구파의 비판세력으로 등장하여 명성을 떨친 바 있는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 1454~1504)의 문하에서 학문을 쌓았다.¹³⁾ 김굉필은 서울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의리와 정의감이 강했다. 수기치인(修己治人)·성리학 실천 등 도덕관에 대한 사명감 또한 높았다. 그리고 머무는 곳마다

9) 최길용, 『신재 최산두』, 초계씨씨대종회, 2017, 41쪽.

10) 『新齋集』, 43쪽, 일인유경(一人有慶)이란 『서경』〈周書呂刑篇〉 ‘일인유경 비민뢰지 기령유영(一人有慶 兆民賴之 其寧惟永)’에서 나온 말이다. ‘임금에게 선(善)이 있으면 천명(天命)이 새로워져 국운(國運)이 영원하리라’라는 의미이다.

11) 韓永愚,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을유문화사, 1983.

12) 徐正煥, 「朴祥 文學世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5쪽.

13) 최한신, 「石川 林億齡 詩文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1쪽.

유학과 문학을 부흥시켰다. 첫 유배지인 희천에서 조광조를, 다음 유배지인 순천에서 최산두를 제자로 두었다. 그리고 1504년(연산군 10년)에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순천에서 극형을 당했다.

16세기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세계관이 더욱 체계화 되고 문(文)은 도(道)의 말(末)이라는 도본문말론(道本文末論)이 자리매김하였다. 사림파들이 중종과 함께 도학적 사고를 정립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시대적 이슈를 낳은 것이다. 반정으로 등극한 중종은 도학적 사고로 뭉친 사림파들을 대거 정치에 참여시켰다.¹⁴⁾

중종은 사림파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다. 이때 최산두는 ‘은자천거론(隱者薦舉論)’을 주장했다. 은거한 사람이더라도 덕행이 높고 청렴한 사람이라면 뽑아서 써야 한다는 뜻이다.¹⁵⁾ 결국 신진세력인 사림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성리학적 문학 풍토가 자리 잡게 되었다. 중종이 개혁하고자 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인재를 얻는 것이다. 인재를 얻으려고 할 때 먼저 인재를 알아보아야 한다. 인재를 알아보는 일은 예로부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정승자리에 궐원(關員)이 있으므로 그 후보자를 구하는 중이다. 그 궐원을 즉시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얻은 정승이 어질다면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군자 한 사람만 나오게 된다면 뒤 이어 여러 군자가 나올 것이다. 지금 어진 군자 한 사람을 얻어야 어진 이가 저절로 나올 것이다.

중종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믿고 인재등용을 맡겼다.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중종은 국정 전반을 장악하여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었을 것이다. 새로 등장한 사림파 선비들은 조급함이 앞서 자신들의 이념을 현실화 하고자 노력했다. 지방에까지 자신들의 이념을 확대시켜 조선사회 전반에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급진적인 사회 개혁은 훈구파들과의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1519년(중종 14년)에 기묘사화(己卯士禍)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14) 『中宗實錄』, 13年 正月 14日 甲寅, 上曰政治之道不過於得人也欲得人須先知人知人自古爲難今相位有關方求其人而不郎補其闕者以事重也得一相而賢則治可興俗可美也一君子進則衆君子進今得一賢相則賢人自至矣.

15) 『中宗實錄』, 13年 正月 14日 甲寅.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사림과 중에 조광조와 더불어 8명이 먼저 화를 입었다. 사림들로부터 추방받던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 1482~1519)는 화순 능주로 유배되어 사사되었다. 그의 귀양살이는 호남 사림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학문적인 감동을 주었다. 특히 최산두는 조광조와 낙중군자회(洛中君子會)¹⁶⁾를 갖고 우의를 돈독히 하였기에 그 충격이 남달랐다. 뒤이어 최산두를 비롯한 23 현이 유배 되거나 파직되었다.

최산두는 51세 때까지 화순 동북에서 14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는 유배생활 중 얻은 병으로 인하여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최산두가 세상을 떠난 후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 산 915번지에 도원서원(道源書院)이 세워져 배향되고 있다.

2.1.2. 정신적 지향

최산두는 기묘사화 때 연루되었던 사림과 중에 한 사람이다. 사림파는 주자학(朱子學)을 학문적 이념으로 삼았던 인물들로 평가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자학적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소학(小學)』으로 교육을 받았고, 이를 행위의 준거(準據)로 삼았던 이유로 보인다. 주자학은 성리학의 뿌리에서 연원된 학문이다. 길재(吉再)에게 『소학(小學)』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김숙자(金叔滋)는 아들 김종직(金宗直)에게, 김종직은 김굉필(金宏弼)에게 김굉필은 조광조(趙光祖)와 최산두(崔山斗)에게 사림과 성리학을 전수하였다.¹⁷⁾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에서 확립된 중소지주층의 학문이다. 역사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한 중소지주 출신 학자와 관료들이 귀족과 지주 중심의 사회를 비판·지양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유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체제를 새로이 한 학문¹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문의 뼈대는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서 공도(公道)에 입각한 치인(治人)의 실현을 위한 성인(聖人)과 현인(賢人)의 '사리추구(私利追求) 배제'이다.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엽이

16) 『新齋集』, 14쪽. 1501년 최산두는 스승 김굉필의 조언으로 상경하여 그 제자들인 조광조·김정·김안국·김식·김구·한충·김정국·박세희 등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었다. 그리고 도학(道學)을 강구(講究)하니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일러 낙중군자회(洛中君子會)라고 칭하였다. 최길용이 엮은 「신재 최산두」의 글 인용.

17) 백숙아, 『新齋 崔山斗 研究』,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4쪽.

18) 李忠烈, 「朝鮮朝 性理學의 形成과 그 正脈」 『大東文化研究』 13,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소, 1979, 11쪽.

다. 송나라에서 성리학 체계가 갖추어지던 당시 고려는 중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고려 중기는 아직 불교를 기반으로 한 문신 귀족들의 지배체제가 굳건했다. 이 지배체제 때문에 고려 말이 되어서야 성리학이 유입되었다. 즉, 공감하는 계층이 형성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에 이르러 대외적인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중소지주층이 향리에서 품관으로 대거 신분 상승을 하게 된다. 그들 스스로 중앙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고해진 것이다. 조선왕조 창건의 바탕이 되는 중소지주층 정치 참여 자격 획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반전이였다. 성리학은 바로 이러한 전환기에 신흥세력의 구체제에 대한 비판 논거로서 정당성이 인정되어 수용이 된 것이다.¹⁹⁾

사림파는 15세기 중엽부터 집권층인 훈구파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참신하고 선진적인 당시의 지식인들이었다.²⁰⁾ 사림들은 덕행을 우선하는 학문에 주력하고 제자 육성에 힘썼다. 이들의 주된 학문은 도학으로 인간의 바른 심성과 행동을 중요시하는 학문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바른 심성에서 짚든 문예를 중시하였다.²¹⁾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살았던 최산두는 중종13년에 『성리대전(性理大典)』 강독관(講讀官)으로 발탁되어 경연에 나아가 강독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최산두가 조정에서 성리학에 대하여 학문적인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이렇듯 최산두는 성리학에 뜻을 두고 정치에 임했으며, 도(道)의 실천적 정신(思想)을 평생 숙원으로 삼았다.

최산두는 22세 때에 『주자강목(朱子綱目)』을 시제로 한 진사사에서 <강목부(綱目賦)>와 <백량대(柏梁臺)>를 지어 장원급제 하였다. 다음 <강목부(綱目賦)>에서 그의 정신세계를 가늠할 수 있다.

송(宋)의 해가 중천에 떠 문치(文治)의 운(運)이 열리고 삼광(三光)과 오옥(五獄)의 기(氣)가 전하여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었더라. 하늘은 희응을 내리심으로 우리의 도를 영원케 하여 백 세 후에 우뚝한 모습(光岳)²²⁾으로 높이 서게 되었다. 오늘날

19) 위의 논문, 3쪽.

20) 이민홍, 『增補 士林波文學의 研究』, 동국문화인쇄, 2000, 9쪽.

21) 『栗谷全書拾遺』 권3, 『興宗頤卷』, 2000, 9쪽.

22) 광악(光岳): 해, 달, 별 등 세 빛과 동옥, 서옥, 남옥, 북옥, 중옥의 다섯 개 큰 산을 이른다.

태운(泰運)²³이 바야흐로 형통하고 도맥(道脈)이 올바르게 서게 될 것이니, 심의(深衣)²⁴의 의탁은 어찌 전배(前輩)²⁵들만이 할 일이겠는가? 이락(伊洛)²⁶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고 수사(洙泗)의 전형(典刑)²⁷에 의한 주자가 생각한 그 뜻에 따라 당시에 행하지 못했던 뜻을 강행하여 하늘이 부여해 준 막중한 뜻에 보답해야 할 것임을 불기군자(不器君子)²⁸들에게 깊이 바라는 바이다.

이 글을 통하여 최산두는 학문의 연원을 주자학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김굉필의 학문을 계승하였기에 주자의 정통학설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도(道)의 실천에 앞장서서 제자들에게도 모범을 보였다.

아! 저서(著書)를 후세에 남기는 일이 비록 선비의 일이고, 임금의 지우(知遇)를 입어 도(道)를 행(行)하는 일은 당년(當年)의 뜻이다. 그러나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은 누리기 어렵고, 명류(名流)들은 또 비방(誹謗)을 많이 받는 건가. 간사한 말들은 이미 들어오고 바른 학문은 당파에 걸리고 말더러. 임금을 바르게 하려는 일념으로 비록 가까이에서 대할 생각만 간절하여 정치에 대한 대사(六事)를 논하여 올렸으나 결국 탁위(託胃)의 농권(弄權)²⁹에 걸리고 말았다. 마침내 세상을 경영할 뜻을 다만 언어문자 사이에 붙여두고 말았으니 송나라가 사문(斯文)에 참여 못한 것은 어찌 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도(道)가 후세에 전해지게 되면 만세(萬世)의 문명을 열 것이다.³⁰

이 글에서 살필 수 있듯이 최산두는 사림파들과 생각의 궤를 함께 하였다.

23) 태운(泰運): 태평한 운수.

24) 심의(深衣):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가 입던 옷.

25) 전배(前輩): 선배.

26) 이락지연원(伊洛之淵源): 이(伊)는 이천(伊川) 낙(洛)은 낙양(洛陽)인데 북송(北宋)의 정이(程伊, 1033~1107)와 정호(程顥, 1032~1085) 형제를 이른다. 아우 정이는 이천에서, 형 정호는 낙양에서 강학(講學)하였다. 때문에 이락의 연원(淵源)이라 하여 주자(朱子)가 이 학통을 계승하였다.

27) 수사지전형(洙泗之典型): 공자가 살았던 산둥성 곡부(曲阜)에 있는 두 하천인 이수(洙水)와 사수(泗水)이다. 따라서 공자의 학통을 수사학(洙泗學)이라고 한다.

28) 불기군자(不器之君子): 인격과 지혜가 갖추어져 어떠한 곳에서도 능통한 선비.

29) 탁위지농권(託胃之弄權): 중국 남송(南宋)의 한탁주(韓託胄)(?~1207)는 주희(朱熹=朱子)와 그 학파를 위학(僞學)으로 몰아 배척하였다. 결국 그들을 추방함으로써 소위 경원(慶元)의 당금(黨禁)을 일으켰다.

30) 『新齋集』, 70쪽. 噫著書垂後雖儒者事得君行道乃當年志是何享嘉難會名流多謗邪言已入正學坐黨格君一念雖切邈英之召對論政六事其奈託胄之弄權卒使經世之志但寓夫言語文字之間宋之不得與於斯文豈不慨然乎雖然道行於身只致一世之治平道傳於後是啓萬世之文明.

오직 도(道)만이 후세에 문명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다. 이는 도의(道義)와 인의(仁義)를 근본으로 하는 ‘도본문말(道本文末)’의 정신적 사상이 녹아 있음을 시사한다.

최산두는 스승 김굉필을 찾아다니던 시기에 낙안으로 유배 온 조선전기 문신 우졸재 박한주(迂拙齋 朴漢柱, 1459~1504)³¹⁾의 문하에서도 수학하였다. 박한주는 연산군의 부족한 덕을 직접 간(諫)했다가 탄핵되었다.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도(門徒)로 무리지어 국정을 비방한다는 죄목을 씌워 평안북도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다. 1500년 전남 낙안으로 이배되었다가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처형당했던 인물이다. 최산두 나이 18세 때 김굉필의 소개로 만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굉필과 박한주는 최산두에게 성리학을 전수하여 호남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때문에 미암 유희춘은 호남 학문의 연원이 박한주에게서 나왔다고 하였다.³²⁾

최산두는 18세부터 22세(1500~1504)까지 두 스승에게서 조선의 성리학을 뿌리째 전수받았다. 길재 - 김숙자 - 김종직 - 김굉필로 이어지던 조선의 성리학은 최산두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이자 호남의 거유(居儒)로 불리는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에게 전해졌던 것이다. 이로써 그의 정신적 세계의 전모를 가늠할 수 있다.

2.2. 한시의 인문학적 의미망

한 시인을 연구하고 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문학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시인의 내면적인 성품이나 인격 외에도 그가 지녔던 성별상의 처지, 나이의 변화, 시대상황의 명암(明暗), 사회경제적 입장인 신분적 지위와 가정형편 등이 하나로 어우러져 시인이란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³³⁾ 이것은 또한 시인에 대한 외면적 상황이 된다. 그 바탕 위에서 그 시인인 자아의

31) 우졸재 박한주(迂拙齋 朴漢柱, 1459~1504)의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천지(天支), 호는 우졸재(迂拙齋)이다. 아버지는 박돈인(朴敦仁)이다. 1485년(성종16)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사간원 헌납에 이르렀다. 무오사화 때 봉당을 지어 국정을 비방했다는 명목으로 유배되었다.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 때 처형당했다. 『우졸재실기(迂拙齋實記)』가 있다. 우졸재박산생려표비명병서(迂拙子朴先生閻表碑銘 并序), 4쪽.

32) 최길용, 앞의 자료집, 25쪽.

33) 홍우흠, 『한시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1, 28~90쪽, 재인용.

심리적 상태는 자아 아닌 세계 곧 외물을 각기 나름대로 인식하게 하는 고유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인에 대한 연구는 그 시인의 시학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외면적 상황의 진단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런 다음 시인의 심리적 상태를 형상화한 작품의 이해가 따르게 된다.³⁴⁾

최산두의 문학작품은 유가적 사상, 즉 성리학을 기저(基底)로 하고 있다. 그의 시편들은 자아와 세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조화를 읊었다. 정치인이자 문인이었던 그는 화순 동북에서 14년여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작품들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일실하여 제대로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賦) 1편(篇), 한시(漢詩) 18수(首), 편지글 11편(篇)이 그의 문집에 전해져오고 있다. 그의 명성과 활동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작품 양이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연애와 인간애를 형상화한 작품들을 통하여 최산두 한시의 특징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2.1. 자연애(自然愛)

최산두 한시 중에는 자연을 읊은 시들이 많은 편수를 차지한다. 태어난 곳과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 향촌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세상 이치(理致)가 시 속에 형상화 되어 있다. 다음의 <題勿染亭>³⁵⁾에서는 기발한 비유와 참신한 시적 발상이 돋보인다.

江含白玉窺魚鷺 강이 백옥을 머금으니 백로가 고기를 엿보고
山吐黃金進蝶鷺 산이 석양을 토하니 꾀꼬리가 나비로 알고 쫓네.

이 시는 앞의 두 구가 일실(逸失)된 작품이다. 비록 두 구만 남아 있지만 비유나 함축적인 시적 매력이 넘친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맑고 고요한 일상의 자연을 읊었다. 물염(勿染)이 바로 그곳이다. 정자와 마주한 강산과 그곳에 노니는 노란 꾀꼬리와 나비가 마치 눈앞에 살아 움직이듯 생생하게 느껴진다. 강이 백옥을 머금으니 백로는 고기를 엿보는 듯하고, 산이 석양을 토하니 꾀꼬리가 나비인 줄 알고 쫓는다고 하였다. 이 작품의 시적 기교와 비유적 표현에서 작가의 세련된 고도의 창작력을 엿볼 수 있다. 자연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깊이

34) 최한선, 앞의 논문, 7쪽 재인용.

35) 『新齋集』, <題勿染亭>.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漁網〉³⁶⁾은 자연을 인간의 내재적 의미망에 함축시켜 심오한 시상을 펼친 작품이다.

| | |
|---------|--|
| 鱗結義繩數可深 | 복희씨(伏羲氏) ³⁷⁾ 의 의리로 촘촘히 엮은 그물이 |
| 長江水盡積如林 | 장강(長江) 너른 물에 숲처럼 가득하네 |
| 設網以法無遺細 | 법으로 설치한 그물엔 작은 틈도 없으니 |
| 雖有吞舟不敢侵 | 배를 삼킬 만한 큰 고기라도 감히 침범치 못하겠네. |

이 시가 내재한 시적 뜻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이 옳지 않은 구속이라며 현실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물’은 뱀가를 움아매는 함정을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그 함정이 나쁜 무리들을 포획하는 의리의 그물이다. 배를 삼킬 정도의 큰 고기라도 이 그물은 빠져나갈 수 없다. 너무나 세세히 엮어매어 탐관오리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작품 속의 자연은 그냥 자연이 아니다. 정치현실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는 인간사를 꼬집었다. 즉 세상 질서의 순리와 조화로운 이치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읊은 듯하다. 그러나 화자는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라 변화하는 질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깨달음을 읊은 것이다. 작가는 자연현상을 노래하면서 내면 깊숙이에 사회비판 의식을 표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 |
|---------|------------------------|
| 菴云天子在高峯 | 천자라고 하는 암자가 높은 봉우리에 있어 |
| 客帶江南故舊從 | 나그네는 강남의 옛 친구를 따라 나서네 |
| 山意迎秋新染色 | 산은 가을을 맞이하여 색이 깊어가고 |
| 鍾聲待曉默爲容 | 종소리는 새벽을 기다리느라 고요하네 |
| 無緣鶴髮閒眠枕 | 인연 없는 백발노인은 한가로이 잠들고 |
| 自抱琴情靜聽松 | 거문고 안은 정으로 솔바람 소리를 듣네 |

36) 『新齋集』, 〈魚網〉.

37) 복희씨(伏羲氏): 중국고대 전설상의 제왕이다. 삼성오제(三星五帝)의 수위(首位)를 차지하여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新齋集』, 93쪽.

風月清澹然後景 풍월이 맑은 뒤의 아름다운 풍경에
虛勞遊杖駉千重 피곤함에도 지팡이로 천첩 벽을 오르네.

위의 시는 <更登天子菴>³⁸⁾은 초가을 산사(山寺)의 고요한 풍광, 그리고 그림처럼 잔잔하게 펼쳐진 가을정취를 묘사하고 있다. 시인은 이 작품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가을 산에는 단풍색이 더욱 무르익어가고 아직 울리지 않는 새벽종을 바라보는 시인의 적막한 은둔생활이 엿보인다. 자신의 처지를 조화로운 자연에 대비시켜 읊은 시적 표현이다.

새벽을 기다리는 종소리는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적화자의 마음이다. 이는 실재한 천자암 주변의 자연을 통하여 청렴한 정신과 도학자로서의 의로운 삶의 추구이자, 정신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연이라는 신세계를 통하여 인간사의 고뇌를 펼쳐 보이고 있다.

江南朝暮帶昇平 강남땅 아침저녁 밥 짓는 평화로운 연기
細逐村娥若有情 이따금씩 촌 아낙 따르는 모양이 정겨워라
時時隨雨前山渡 때때로 비를 따라 앞산을 건널 때면
洗出塵埃氣太清 물이 티끌을 씻어주어 기운이 더욱 맑아지네.

위의 <炊煙>³⁹⁾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우심을 회화적 의미로 표현했다. 촌 아낙의 치맛자락을 싸고도는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다. 때때로 비 오는 날 앞산을 넘을 때면 물이 온갖 시름을 씻어주는 것 같아 기운이 절로 생겨난다.

작가는 일상의 삶에서 새어나오는 조화로운 자연현상을 통하여 세상이치를 깨닫게 한다. 아침저녁으로 마주하는 농촌의 평범하면서도 여유로운 일상이 아름다운 필치로 펼쳐졌다. 시인의 여유로움이 산자락을 타고 넘어 세상에 티끌과 먼지도 씻어갈 기세이다.

아침저녁으로 접하는 향촌의 풍경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듯 읊었다. 짙막한 한 수의 시에 자연스런 울격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리듬감이 돋보인다. 이 시는 시인의 마음 속 염원을 촌락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경치 속에

38) 『新齋集』, <更登天子菴>.

39) 『新齋集』, <炊煙>.

함축시킨 작품이다.

2.2.2. 인간애(人間愛)

인간의 삶은 연속된 이야기를 만든다. 그 이야기 속에는 한 사람의 고유한 사상과 의식이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주어진 환경과 나이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간관계와 학문을 통하여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경험과 충격으로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산두는 김굉필과 조광조를 만나면서 거대한 꿈을 꾸었고, 역으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최산두의 삶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김인후와 유희춘 등 제자들과의 만남이다. 이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과 삶의 에너지를 얻었을 것이다. 삶의 여정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할 시기에 자신의 철학과 궤를 같이 했던 스승들의 뒤를 이어 유배를 가게 되었다. 유배지에서는 암울한 생활이었지만 제자들을 만나 가르치면서 위안을 삼았다.

다음 <여유미암동연(與柳眉巖同宴)>⁴⁰에서 최산두는 제자인 유희춘과의 술자리에서 나눈 정을 읊었다.

| | |
|---------|------------------------|
| 白髮文章放醉歌 | 백발의 문장이 취해 노래를 부른 것은 |
| 蓋由宴席酒盃多 | 잔치 자리에 술잔이 많았기 때문이네 |
| 雲樹深情猶未了 | 운림처럼 깊은 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
| 落花啼鳥夕陽阿 | 해 저문 언덕엔 꽃이 지고 새가 우네 |

최산두는 이 시에서 제자와의 즐거운 술자리의 정회(情懷)를 읊었다. 산수자연에 묻혀 살았지만 늘 갈등하고 외로웠던 심경이 시 속에 드러난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늙은 문장의 체면도 잊고 만취했다. 술의 묘한 힘은 냉철한 현실과 대립적인 망각의 성질을 지닌다. 당시의 현실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기란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다. 젊은 시절 열정이 고단한 역사를 안고 사라져 가고 있다. 제자를 만나 술잔을 나누며 세상 모든 근

40) 『新齋集』, <與柳眉巖同宴>.

심도 함께 마셔버린다. 술에 취해 잠이 오지 않는다. 여기에서 백발의 취기(醉氣)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하는 망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산두에게 있어 유희춘은 사제시간이면서도 아끼는 벗이었다. 벗은 서로의 속내를 거리낌 없이 터놓을 수 있는 허물없는 사이라야 한다. 취중진담(醉中眞談)이란 말이 그냥 있겠는가? 술에 취해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털어놓으며 위안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그 분위기를 표현한 부분에서 친교의 정답이 한층 강하게 느껴진다.

다음은 세속의 욕망과 미련을 떨쳐버리고 신선의 세계를 무심(無心)으로 읊은 <鳳仙花>⁴¹⁾이다.

| | |
|---------|---|
| 丹禽飛下赤松從 | 단금(丹禽) ⁴²⁾ 은 내려오고 적송(赤松) ⁴³⁾ 은 따라가고 |
| 誤落人間今幾載 | 인간 세상에 잘못 내려 온지 몇 해이던가 |
| 別春富貴樂相逢 | 4월엔 모란과 서로 만나 화평하게 즐기며 |
| 一種名葩不妬容 | 한 송이 꽃(봉선화)이 되니 샘날 일이 없어야 |

이 시는 신선의 경지를 비유한 작품이다. 단금은 봉황을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이다. 비록 향촌에 은둔하여 살고 있지만 인간사에 미련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세속적인 욕심을 완전히 떨쳐 버린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상태이다. 마음을 비우고 봄에 핀 모란과 서로 만나 화평하게 즐기자고 했다. 이 구절에서 친한 벗들과 다시 만나 새로운 세계를 열고 싶어 하는 시심(詩心)이 엿보인다.

41) 『新齋集』, <鳳仙花>.

42) 단금(丹禽): 단금은 단조(丹鳥)를 말한다. 단조는 봉황새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봉황새는 경사스러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이다. 몸과 날개에 오색 빛이 찬란하고 오음(五音: 동양의 전통 음악에서, 궁, 상, 각, 치, 우의 다섯 음계를 이르는 말)에 맞는 소리를 낸다고 한다. 오동나무에 깃들이고 대의 열매를 먹으며, 예천(醴泉: 중국에서 나라가 태평할 때 단물이 솟는 샘을 말함)의 물을 마신다고 한다. 성천자(聖天子는 덕이 높은 천자를 이룸)가 나타나면 이 새가 나타나는 데, 못 짐승들이 따라 모인다고 한다. 용, 기린, 거북 등과 함께 네 가지 동물을 영물(四靈物)이라 칭한다. 시에서 단금(丹禽), 곧 봉황(鳳凰)은 봉선화(鳳仙花)의 첫 글자인 ‘鳳’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3) 적송(赤松): 적송은 옛 선인인 적송자(赤松子)를 말한다. 곧 신선들이 사는 선계(仙界)이다. 이 적송(赤松), 곧 선계(仙界)는 봉선화(鳳仙花) 가운데 글자인 ‘선(仙) 자(字)를 비유한 것이다.

| | |
|---------|------------------------------------|
| 名聲藉甚冠群倫 | 명성이 높음은 동년배 중에서 으뜸이며 |
| 自愧孤蹤廁後塵 | 외로운 자취는 뒷전 티끌이라며 부끄러워 했네 |
| 學行文章敢同日 | 학행과 문장이 감히 누구랑 같을까 |
| 悲涼毀謗即分身 | 슬픔과 헐뜯음 너무나 많이 겪었네 |
| 青年地下君猶逝 | 청년인 그대가 지하로 갔으니 |
| 白髮人間我孰親 | 나이 든 나는 인간 세상에서 누구와 벗할까 |
| 花鳥滿林春似海 | 꽃과 새들이 가득한 숲의 봄은 바다와 같건만 |
| 一樽何計笑談新 | 술독 마주하며 이야기할 날 언제일까 ⁴⁴⁾ |

이 시는 최산두와 가장 절친한 벗인 안순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輓安思齋堂> 2수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 인간세상과 하직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절친한 친구의 죽음 앞에서 어떤 위로가 와 닿을까? 안순지의 죽음을 직면하여 쓴 이 작품은 이상세계와의 단절 의미를 내포한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느낀 쓰라린 마음을 읊었다. 안순지는 정치현실에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했다. 많은 정적(政敵)들과 연속되는 갈등(葛藤)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갈등을 극복하려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유배지에서 힘들게 연명하는 친구(최산두)를 위하여 문방사우(文房四友)와 곡식을 보내주며 위로했던 친구이다. 숲에는 꽃과 새들이 바다처럼 가득하여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친구가 이젠 없다며 비통해 하는 작가의 마음이 오롯이 시상에 펼쳐졌다.

최산두는 매사에 엄격하고 다정다감했다. 제자에겐 한없이 따스하고 인자한 스승이었으며, 벗에게 늘 다정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최산두의 정신적 지향과 인간미는 대부분의 시편에서 동시에 발현된다. 한없이 외롭고 힘든 유배생활과 은둔생활을 하면서도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잊지 않았다. 그의 시에는 충효 정신, 애민 의식, 우정과 의리, 삶의 진솔함이 깊숙이 배어있다.

44) 『新齋集』, <輓安思齋堂>의 첫째 수.

3. 최산두 관련 유적·유물과 문화콘텐츠

3.1. 유물의 문화적 가치

3.1.1. 『신재집(新齋集)』

『신재집』은 최산두의 문학작품과 실기를 엮어 제작한 책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36년 후인 1571년(선조 4년)에 광양의 유생이었던 서덕린이 『최신재선생집』을 간행 했으나 유실 되었다. 신미년(1871)에 최산두의 후손인 시묵(時默)과 석구(錫龜) 등이 최산두의 유문과 실기를 수습하여 『신재최선생실기(新齋崔先生實紀)』를 초계최 씨 족보 초간본 부록에 붙여 간행하였다. 1911년 후손 순영(順永), 석구(錫龜) 등이 선현들의 문집들을 질정하여 수편을 찾고 앞의 신미본을 증보하여 『신재최선생실기』를 중간(重刊)하였다. 1921년 신유년에는 후손 중수(鍾秀)가 앞의 신해본에 유사(遺事)를 증보하여 『신재최선생문집(新齋崔先生文集)』을 간행하였다. 5년 뒤인 을축년(1923)에는 후손 석주(錫柱)가 연보를 작성하고 사시(私諡)를 헌정한 사적을 보태어 『신재최선생문집』을 다시 간행하였다. 기사년(1989)에 후손 길용(吉容)이 그간 간행된 내용을 수습·종합 정리하고 증중실록, 대동야승, 연려실기술, 전설집 등에 실린 기사를 모아 증보했다. 그리고 8권으로 편한 『신재집(新齋集)』을 국역하여 간행하였다.⁴⁵⁾

『신재집』에는 최산두의 한시 18수, 부(賦) 1편, 편지글 11편이 실려 있다. 비록 작은 편수의 작품들이지만 자연, 충효, 효심, 우정 등 작가의 사상과 예술적 감성이 오롯이 담겨 있다. 최산두의 유일한 부분학인 <강목부(綱目賦)>는 그의 뛰어난 문학과 학문의 깊이를 가늠케 한다. 특히 산수자연과 지우(知友)들에 대하여 읊은 한시에서 풍기는 시심(詩心)은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신 치유에 위로가 되어 줄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간행된 『신재집』은 학문적·문화적·심신치유 목적의 문화콘텐츠 기반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45) 최길용, 위의 자료집, 33쪽 참조.

3.1.2. 옥홀(玉笏)

중종이 최산두에게 하사한 옥홀은 5년여 전에 전라남도지정 유형문화재 40호로 등록되었다. 그동안 도원서원에 보관되었었다. 국가유산으로 등록되려면 관할지로 옮겨와야 한다고 하여 현재 광양 읍 중가에서 보관하고 있다.

3.1.3. 기묘제현수첩

『기묘제현수첩』은 조선 중기 문신이자 최산두의 절친이었던 사재 안처순(思齋 安處順, 1493~1534)이 기묘사화 당시 기묘명현 12현과 주고받은 친필 편지 39편을 모아 만든 서간첩이다. 39편 중 최산두의 서간이 11편으로 가장 많다. 11편 가운데 한 편이 『한국명가필보(韓國名家筆譜)』 37면에 수록 되어 있다. 『기묘제현수첩』은 보물 제1198호로 지정되어 있다.

3.1.4. 기묘제현수필

기묘제현수필⁴⁶⁾은 조선 전기 기묘명현의 송별시를 모은 서첩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운중동)에 위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 중이다. 1994년에 보물 제1197호로 지정 되었다. 순흥 안 씨 문중에 보존 되고 있다. 이 서첩은 순흥 안 씨 사재(思齋) 안처순(安處順)이 1518년 홍문관 박사로 재직할 때 남원에 계신 모친을 위해 가까운 곳의 지방관을 자청, 구례 현감에 부임하게 되자, 유용근(柳庸謹),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동료와 친구들이 송별의 뜻에서 서(序)·시(詩) 등을 지어준 것이다.

안처순(安處順)의 아들 안전(安瑑)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모두 24명의 필적이 48면에 실려 있다. 이 수필첩에는 김인후(金麟厚)가 1549년 7월에 쓴 발문과 호남 안찰사 한준겸(韓浚謙)이 1603년에 쓴 발문이 있다. 한준겸의 발문에 따르면, 1601년 남원을 지나다가 이 서첩을 보고 이를 서울로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보였다. 대제학 이호민(李好閔)이 궁중 장인을 시켜 깨끗이 표장(表粧)하게 하고 명필 한호(韓濩)에게 표제(表題)를 부탁했다고 한다. 뒤쪽에는 조인영(趙寅永)이 1829년에 전라감영에서 다시 표장하고 일부를 판각하여 원본을 후손에게 돌려주었다는 1830년의 발문이 있다. 맨 끝에는 송병선(宋秉璿)의

4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100.daum.net/book/624/list>. 기묘제현수첩은 이 자료집의 글을 인용함.

발문이 붙어 있다. 이 수필첩은 안치순이 기묘명현에게서 받은 서간을 모은 「기묘제현수첩」과 함께 16세기 정치사 및 서예사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 서첩 속에 최산두의 작품은 전별시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토록 귀한 유물들은 도난이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여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활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전시회를 통하여 훌륭한 지역 인물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방법이다. 지역민들조차 최산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은 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전시한 작품들을 미디어자료로 제작하여 여러 사이트에 제공하는 방법이다. 문서로 된 자료는 잡자는 사자에 불과하다. 유물은 알리고 홍보하여 관광 상품·인문학 보급 확대·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그 가치가 높아진다.

3.2. 유적의 문화적 활용

3.2.1. 학사대(學士臺)

학사대(學士臺)⁴⁷⁾는 광양시 옥룡면 동동마을 건너편 옥룡천변에 자리하고 있다. 최산두가 15세 때 『주강강목(朱子綱目)』 80권을 안고 들어가서 천 번을 읽고 나왔다는 자연암굴 앞에 세워진 정자이다. 그 아래에는 그가 학문을 닦았던 자연암굴이 남아 있다. 자연암굴에는 한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틈이 있고 식수를 해결해 수 있는 물도 나온다. 실제로 연구자(백숙아)가 자연암굴에 들어가 앉아서 당시를 회상해 보았다. 암굴 천정은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높았으며 성인이 고개만 숙이면 암굴에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넓고 높았다. 지금은 물이 말랐지만 신경 쓰면 식수 해결이 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꼭 암굴에서 물을 얻지 않아도 바로 아래에 옥룡천이 흐르고 있어서 식수 걱정이 없는 장소이다.

학사대는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이며, 콘크리트로 바닥을 다져 세운 작은 정자이다. 정자 바로 옆 암벽에 ‘學士臺’라고 새겨진 글씨는 최산두의 자필 글

47) 학사대(學士臺)에 대한 글은 『光陽市誌』와 백숙아, 「신재 최산두의 시세계」, 『한국시가문화연구』 18, 2006, 207~235쪽의 내용을 인용함.

씨라고 전해져 온다. 학사대는 문화해설사가 상주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필요할 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문학자나 고전문학 또는 문화 관련 연구자들이 찾아오는 빈도수가 상당하다. 백운산이 감싸주고 있으며 주변 경관이 수려하다. 그리고 바로 건너 추산마을에는 윤선도가 유배생활을 했던 장소로 두정되는 곳에 비가 세워졌다.

최산두는 윤선도의 증조부인 굴정 윤구(橘亭 尹衢)와 유희춘의 형 나재 유성춘(懶齋 柳成春)과 함께 당시 문장이 출중하여 호남삼걸두구춘(湖南三傑斗衢春)으로 불리었다. 최산두와 윤선도, 최산두와 유희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윤선도의 유배지가 학사대 근처 옥룡 고을이니 둘을 묶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면 문화적 가치, 관광, 교육 등의 영역에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3.2.2. 최산두 묘와 신도비

최산두 묘는 광양시 봉강면 저곡마을에서 동북쪽 화전봉(花田峰) 중턱에 위치한다. 무덤 앞에 석인상(石人象)이 있다. 한단 아래에는 망주석(望柱石)이 있다. 그리고 전남 광양시 봉강면 부현마을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가다가 마을 조금 못 미쳐 도로 왼편에는 최산두의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는 1922년에 세워졌다. 신도비는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남동쪽에 남쪽을 향하여 큰길가에 세우는 비이다.

3.2.3. 천자암(天子菴)

천자암은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에 자리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松廣寺)의 산내암자이다. 송광사 제9세 국사인 담당국사(湛堂國師)가 창건하였다. 담당이 금나라 왕자였으므로 천자암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⁴⁸⁾

최산두는 22세 때인 1504년(甲子) 진사시(進士試)에서 <강목부(綱目賦)>와 <백량대시(柏梁臺詩)>를 지어 장원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최산두의 스승 한훤당은 순천에서, 나졸재는 낙안에서 참형을 당하였다. 한꺼번에 두 스승이 참변을 당한 후 최산두는 연산군의 폭정을 피하여

4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 877쪽.

천자암으로 은둔하게 되었다. 천자암에서 9년을 은둔하여 살다가 31세 2월에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최산두의 학문적 골격이 형성된 것은 학사대에서 공부했던 때이다. 그 골격에 골수는 한훤당과 나졸재 두 스승에게 공부하던 시기에 채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 뼈 마디마디에 살을 채우고 피가 돌게 한 장소가 천자암이다. 천자암은 최산두의 삶과 문학을 담은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3.2.4. 도원서원(道源書院)과 화순적벽

도원서원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에 있는 서원이다. 1670년(현종 11) 지방유림의 공의로 최산두(崔山斗)·정구(鄭逋)·안방준(安邦俊)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곳이다.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사우(祠宇), 3칸의 규일문(揆一門), 5칸의 집성재(集誠齋), 5칸의 송의재(崇義齋), 3칸의 건공문(虔恭門)과 기타 관리사 등이 있다. 사우의 북벽(北壁)에는 최산두·임억령·정구·안방준 등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⁴⁹⁾

화순적벽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적벽로 630-1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60호(1979.08.03 지정)로 지정되었다. 동북천 상류인 창랑천에는 약 7km에 걸쳐 수려한 절벽이 펼쳐진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북담 상류에 있는 적벽(노루목 적벽)과 보산리, 창랑리, 물염적벽 등 네 곳이다. 적벽은 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관이라든가 웅장함, 그리고 위락공간으로서 동북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명승지로 널리 알려졌다. 1519년 기묘사화 후 동북에 유배중이던 신재 최산두가 이곳의 절경을 보고 ‘중국 소동파가 선유하며 그 유명한 적벽부를 지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적벽에 버금간다.’고 하여 적벽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⁵⁰⁾ 적벽(赤壁)이라 칭한 이후,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다녀가며 기록을 남겨 명승지가 되었다. 화순 적벽은 1982년 10월 15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되었다.⁵¹⁾

4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권, 899쪽.

50)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52XXXX126946>

51) 현재 화순 적벽은 명승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이전에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날짜와 지정호수가 소개하는 곳마다 각각 다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1979년 8월 3일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60호’ 지정 되었다. 2012년 화순군지에는 ‘1982년 전남지방문화재 제68호’, ‘1982년 전라남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 되었다고 쓰여 있다. 현재

최산두가 학문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데 도움이 되었던 장소는 학사대와 천자암이요, 그가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곳은 화순이라고 할 수 있다. 37세에 화순 동복으로 유배되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줄곧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유배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곳에서 많은 문학작품을 창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훌륭한 제자 배출을 했던 곳이 화순이다.

도원서원과 화순적벽은 최산두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곳이다. 이미 문화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화순적벽과 최산두를 배향하고 있는 도원서원을 타 유적지와 접목하여 관광 또는 교육 장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2.5. 봉양사(鳳陽祠)

봉양사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10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선조 11년(1578)에 당시 광양현감이었던 정숙남(鄭淑南)에 의해 세워졌다. 당시 사우 위치는 광양향교 바로 옆이었다. 여러 차례 복건, 중수 과정을 거쳐 오다가 1977년 현 위치에 복설이건(復設移建) 되었다. 2002~2004년에 걸쳐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졌다.⁵²⁾ 조선시대 광양 최고의 학자이자 문인으로 명성이 높은 신재 최산두와 광양현감을 지낸 박세후(1494~1550)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 입구에 신재 최산두의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2005년 1월 27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225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봉양사는 광양향교와 광양교육청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다.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문화 탐방할 때 단골코스라 꼽힌다. 봉양사 주소는 광양읍이면서 학사대가 있는 옥룡과 최산두의 생가 터와 묘가 있는 봉강 초입이기도 하다. 광양에 위치한 최산두 유적지를 탐방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한다. 화순, 승주, 광양 등을 문화콘텐츠로 묶어 관광자원이나 교육자원으로 활용한다면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화순군 홈페이지에는 '1982년 10월 15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60호' 지정으로 표시 되어 있다. 연구자가 화순군 문화관광과에 문의한 결과 1982년 10월 15일이 정확한 기념물 지정 날짜라고 한다. 김다빈, 「화순 赤壁의 '名勝' 지정과 활용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쪽.
52) 광양시지편찬위원회, 『광양시지(光陽市誌)』 4, 도서출판 흥익기획, 2005, 36쪽.

4. 마치며

지금까지 신재 최산두의 삶과 문학을 통하여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구축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작품에 드러난 인간 삶의 가치 지향을 인문학적 문화콘텐츠와 연계하여 논의한 것이다.

먼저 최산두의 삶과 문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재집(新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를 통하여 22세 때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부터 31세 별시문과 급제 때까지의 행적을 살펴보았다. 최산두의 나이 21세 때인 1504년(연산군 10년)에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스승인 김굉필이 순천에서 극형을 당한다. 김굉필의 제자인 최산두에게 화가 미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의 한시 <天子菴霖雨吟>을 통하여 생애 중 잃어버린 아홉 해를 승주군 이읍면에 있는 천자암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최산두 한시에서 자연애와 인간애의 의미망을 탐색하고 논의했다. 광양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 농업, 공업이 어우러진 복합도시이다. 때문에 지역민들의 사회적 계층 갈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야 할 방안을 찾으려는 의도였다. 이는 인문학적 소양을 섭렵하여 인간 삶의 가치 지향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활성화에 있다고 여겨서이다.

3장에서는 최산두 관련 유적과 유물을 연계한 문화콘텐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지역문화 개발에 있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최산두는 조선시대 광양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유적과 유물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광양, 순천, 화순, 등에 자리한 최산두 관련 유적들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과 현장체험학습장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장고에 잠자고 있는 유물들을 취합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여 홍보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최 씨 문중에 보존하고 있는 유물인 최산두 백패(진사 입격교지), 홍패(과거 급제교지) 등 스물아홉 점의 고문서와 자료들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조사된 유물과 유적 관련 자료들을 미디어로 제작하여 다양한 기관이나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이 연구는 지역민의 문화적 소외감 회복과 자긍심 고취, 그리고 인문학적 문화 소통 이해도 증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문학적 지식 공유를 통한 농어촌과 도심의 문화공동체적 협력 체제 구축에 활로가 될 것이다.

최산두와 같은 시기에 활약했던 조선 문인들의 작품이나 그들의 문학적 가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관광 특구로 거듭난 지역들이 있다. 전남 지역은 담양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정자 문화와 많은 문인들이 응집하여 활동하였다는 장점을 지닌 지역이긴 하다. 광양 지역도 문학관을 설립하여 타 지역에 버금가는 인문학이 꽃피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新齋集』

『光陽市誌』

『中宗實錄』

『栗谷全書拾遺』

- 김다빈, 「화순 赤壁의 ‘名勝’지정과 활용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대현, 「조선전기 “무등산권 赤壁” 공간의 문학작품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34,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 김미선, 「漢詩教育을 통한 人性教育의 접근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73, 한국사상 문화학회, 2014.
- 김윤희, 「고전문학의 문화콘텐츠화 현황을 통해 본 지역 문화의 가능성」, 『우리문학 연구』 65, 우리문화회, 2020.
- 백숙아, 「신재 최산두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_____, 「신재 최산두의 시세계」, 『한국시가문화연구』 18, 2006, 207~235쪽.
- 徐正煥, 「朴祥 文學世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민홍, 『增補 士林波文學의 研究』, 동국문화인쇄, 2000.
- 李忠烈, 「朝鮮朝 性理學의 形成과 그 正脈」 『大東文化研究』 13, 성균관대학교 대동 문화연구소, 1979, 11쪽.
- 최길용, 『신재 최산두』, 초계최씨대중회, 태문사, 2017.
- 최한선, 「石川 林億齡 詩文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
- 韓永愚,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을유문화사, 198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100.daum.net/book/624/list>)

| Abstract |

A Strategy to Build Humanistic Cultural Content through Shinjae Choi San-du's Classical Chinese Poems

Baek Suk-ah

Director of Namdo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is a discussion to find strategies to build humanistic cultural content through Shinjae Choi San-du's classical Chinese poetry works. The value orientation of human life revealed in his works wa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humanistic cultural content. First, we examined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in which Choi San-du lived and his spiritual orientation. Through the classical Chinese poems included in his “Shinjae-jip (新齋集)”, we examined his career from the time he passed the exam for the civil service rank of Jinsa at the age of 22 to the time he passed the Irregular Civil Service Exam at the age of 31. When the Gajasahwa (甲子士禍; Gapja year literati's political disaster) occurred in 1504 (10th Year of King Yonsangun), when Choi San-du was 21 years old, his teacher Kim Gweng-pil was executed at Suncheon. It was only natural that the disaster would reach Choi San-du, a disciple of Kim Gweng-pil. Through his classical Chinese poetry “Cheon-ja-am-rim-u-ryeong (天子菴霖雨?)”, it was possible to estimate that he stayed at Cheonja-am temple in Yieup-myeon, Seungju-gun for his lost nine years.

We explored the semantic net of love for nature and humanity appearing in Choi San-du's classical Chinese poetry works and established a strategy to build humanistic cultural content. Gwangyang-city is a complex city where urban, agriculture, and industry are combined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Social class conflicts among local residents are intensifying. In this regard, the intention was to find a way to encourage their pride and love for their hometown. It was discussed that this lies in revitalizing humanistic cultural content with the goal of orienting the value of human life by exploring humanistic qualities.

Through this study, it will have an impact on restoring local residents' sense of cultural alienation, enhancing their self-esteem, and improving their understanding of 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humanities. In addition, it will

be an avenue for establishing a cultural community cooperation system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through healing the mind and body of local residents and sharing humanistic knowledge.

Key words : Choi San-du classical Chinese poetry, value of life, building cultural content, cultural community, healing of mind and body

